

예술미학의 신대륙 '하이퍼텍스트'

《모든 견고한 것들은 하이퍼텍스트 속으로 사라진다》와 《하이퍼텍스트문학》

'책의 종말, 저자의 죽음'이란 담론이 난무하는 요즘 하이퍼텍스트 문학의 특성과 가능성을 점검한 두권의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 책들은 하이퍼텍스트 문학이 비선형적 구조로 저자와 독자의 경계를 허물며 복합적인 주제를 형성한다고 강조한다. 실시간성과 양방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퍼텍스트가 새로운 문학적 도전이자 실험임은 분명하다.



류현주 지음
김영사/A5/236면/8900원

최혜실 지음
생각의나무/A5신/254면/10,000원

“대집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웅장한 노트르담 성당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겼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그의 오른손은 책상 위에 펼쳐진 인쇄된 책을 향해 그리고 그의 왼손은 노트르담을 향해 뻗었다. 그리고는 그의 슬픈 눈이 그 책으로부터 성당으로 옮겨갔다. ‘아아!’ 그는 말했다. ‘이것이 저것을 무너뜨리고 말 거야.’”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의 꼽추》에 나오는 한 대목으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교회의 신성한 권위를 부수고 말 것이라는 운명을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다. 만일 위고가 오늘날 태어났다면 이렇게 바뀌어 말하지 않았을까. “인터넷이 종이책을 무너뜨리고 말 거야”라고.

하이퍼텍스트적 글쓰기의 특징과 가능성

마크 포스터가 말했듯이, 인간의 정보양식은 인쇄를 매개로 해서 글로 씌어진 의사소통에서 전자적으로 매개된 의사소통 양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전 세계(world) 만방에(wide) 거미줄(web)’을 깬 인터넷이 이런 혁명의 깃발을 흔들고 있다. 그 깃발 아래 ‘작가의 죽음, 책의 종말, 소설의 끝’이란 종말론적 예언이 난무하고 있다.

최근 선보인 류현주의 《하이퍼텍스트 문학》(김영사)과 최혜실의 《모든 견고한 것들은 하이퍼텍스트 속으로 사라진다》(생각의나무)는 풍문만 무성한 하이퍼텍스트 문학과 글쓰기에 대한 시론적 성찰이 담겨 있다. 이 책들은 인터넷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예술행위와 글쓰기의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신대륙이라고 규정하고

이곳을 개척할 탐험지도로 제시한다.

《하이퍼텍스트 문학》은 하이퍼텍스트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국내외의 하이퍼텍스트 작품을 중심으로 하이퍼텍스트적 글쓰기의 특징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은이에 따르면, 하이퍼텍스트 문학은 비선형적 글쓰기와 글읽기로 규정될 수 있다. 앞에서 차례로 정보에 접근하는 선형성과는 달리, 문서들이 링크로 연결된 하이퍼텍스트는 정보에 임의로 접근할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 소설 《용의 궁전》을 발표한 바 있는 지은이는 이 책에서 대표적인 하이퍼텍스트 소설과 시를 분석한다. 예컨대, 최초의 하이퍼텍스트 문학인 마이클 조이스의 《오후, 이야기》는 593개의 텍스트가 951개의 링크로 연결돼 있다. 이 소설은 독자의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서사가 이어진다. 결국 기존의 서사구조와는 달리 이 소설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수의 이야기로 변주된다. 따라서 독자는 문학 소비자의 위치에서 생산자의 위치로 격상돼 작가와 함께 창작에 참여하게 된다.

디지털 시대의 화두는 상호텍스트성

《하이퍼텍스트 문학》이 하이퍼텍스트의 실현공간을 헤집고 다니며 직접 체험케 한다면, 《모든 견고한 것들은 하이퍼텍스트 속으로 사라진다》는 현장에서 한걸음 떨어져서 이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지은이의 관심은 텍스트와 하이퍼텍스트, 동일성의 주제와 떠도는 주체의 흔들림, 실제공간과 가상공

간, 원본과 복사본의 경계선을 넘나든다.

지은이에 따르면, 하이퍼텍스트는 비선형적이며 상호텍스트적이다. 독자는 자르고 풀칠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텍스트를 만들어간다. 디지털 시대에는 이분법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맞춤생산과 맞춤형교육이 가능해진다. 퓨전요리, 퓨전예술이 유행하고 지식과 산업, 문화예술과 산업, 교육과 산업이 결합하는 통합의 문화가 주류를 이룬다.

두 책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두 책 모두 셸리 잭슨의 하이퍼텍스트 소설 《패치워크 걸》을 분석하고 있는데, 류현주는 이 작품의 간텍스트성을 강조하는 반면, 최혜실은 이 작품이 다중주체의 전범을 제시하며 비선형적 글쓰기 방식에서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한다.

하이퍼텍스트가 과연 책의 종말과 저자의 죽음을 가져올 것인가. 두 책은 이 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아직도 하이퍼텍스트 혁명의 실험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래의 선형적 글쓰기와 저자의 독재, 근대적 주체가 그 기반을 허물어가는 중이며, 다매체성·실시간성·양방향성이 새로운 시대의 전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박천홍 기자